



지난해 불국사에서 열린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사진제공=삼보불교음악협회

불교합창단원 2천명 한자리에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단양 구인사에서 9월 12일 개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합창단원 2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전국불교음악제가 9월 12일 단양 구인사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한다. 구인사 조사전 앞에 설치될 특별무대는 가로 20m 폭 10m의 대형 무대를 자랑한다. 합창단이 오를 계단도 층 높이를 달리하는 등 굴곡을 뒤 합창단의 진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 흐르는 듯한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불교음악제는 '우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라는 슬로

건 아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창작곡 '붓다의 노래'로 시작되는 1부는 '해수관음의 빛' '경사모라' '정토' '자비실천' '윤회' '물라물라' '보리심' '들국화' '귀의하옵고' 등으로 2부는 '예불' '향연' '부모은중경 중에서 잉태 보육 은혜 어머니님' '세존께 바치는 노래' '나무 관세음보살' 등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안병길 사무처장(삼보불교음악협회)은 "올해 음악제는 어머니와 아들이 봉사하는 내용이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

다"며 "불심 깊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산사를 다니다가 좋은 곳을 발견해 큰 절을 만드는 내용으로 마치 뮤지컬처럼 꾸몄다"고 음악제를 소개했다. 이번 음악제는 예년과 달리 찬불가 불음포교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하는 등 1박2일 동안 음악과 불음포교에 대한 고뇌가 함께 하는 독특한 자리로 마련된다. 찬불가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뮤지컬처럼 꾸민 대형무대 '눈길'... '붓다의 노래' 첫 선 합창단원이 직접 발표하는 '찬불가 불음포교' 주제 세미나

합창단원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며 찬불가를 통한 불음포교 활성화 방안을 찾아갈 전망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는 "찬불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에서 세계도 하나'로 거듭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불교음악협회로 거듭나서 모든 불교음악인의 전담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보불교음악회는 11월 28일 관음회의 뮤지컬 '오세암' 창단 공연, 11월 중순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앙코르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18~20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대의 꿈이 온 인류에'를, 9월 7일에는 한국불교음악역사관 준공 기념 '제7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02)723-0440 강지연 기자

창극 '청' 전주서 만나요

2006전주세계소리축제 9월 16~24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기획초청공연 창극 '청'을 만나자. 9월 22~23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국립창극단이 선사하는 창극 심청전은 안숙선 명창이 작창·도창하고 박성환씨가 대본을 맡았다. 예술감독은 유영대 교수(고려대 국문학과), 연출은 김홍승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페라학과)가 맡아 심청전을 창극으로 변신시켰다.



창극 심청전 화려한 무대 안숙선 명창 직접 '열창'

권선문, 심봉사집, 임당수, 장승상택, 왕궁 연꽃, 왕궁, 용궁 연꽃, 용궁 등으로 꾸며지는 화려한 무대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16~24일 열리는 2006전주세계소리축제는 김늘이, 가야금 병창, 합창, 김수철과 함께, 창작공 공(관)놀이 등으로 축제의 개마를 알리는 개막공연 '소리 파라다이스'를 시작으로 만정 김소희 선생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공연 등이 뒤를 잇는다. 대학창극축제, 소리 프린지 페스티벌 등 세대를 넘나드는 작은 축제들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매해마다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전통과 전위'는 올해 호주의 소리꾼들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의 소리꾼들이 선사하는 선율도 접할 수 있다. 짧은



소리꾼들의 도전 '판소리 젊은 시선', 장애인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천상의 소리', 국악합주 오케스트라의 '여민', 금난새와 함께하는 '신동의 소리' 등도 주목할 코너들이다. (063)280-3326 강지연 기자

자비와 효, 그리고 감동

불교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서울 KBS홀서 출연진 108명 모두 불자... 10월 부산 공연



불교소재 대작 뮤지컬이 이 가을 불자들을 찾아온다. 불심과 효심을 넘나드는 뮤지컬 '갓바위'가 그 주인공. 갓바위 부처님 조성 설화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뮤지컬 '갓바위'는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9월 25일 서울 KBS홀에서 초연하는 창작뮤지컬 '갓바위'는 출연진만 108명이다. 연기자만 50명이 넘고 무용수·합창단·승가대 학인스님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대작이다. '갓바위'의 주제는 '불심과 효심'이다. 보물 제431호 팔공산 관봉 석조약사여래불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석조약사여래불 일명 갓바위 부처님은 원광 법사의 수제자인 의현 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신과 진평왕 11년(617년)에 불사를 시작해 선택여왕 7년(638년)까지 무려 21년간의 작업 끝에 조성된 불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의현 대사가 '갓바위 부처님'을 조성하는 동안 밤마다 큰 학 두 마리가 날아와

그를 지켜주었다. '갓바위'는 의현 스님이 출가하기 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때에서부터 갓바위 부처님을 완성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낸다.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정광진 감독은 "배우들은 강태기씨를 비롯해 모두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갓바위 부처님이 나오는 부분이나 약사여래를 조성할 때 학 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특수연출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 뮤지컬에서 첫선을 보이는 23곡의 음악은 전부 창작곡이다. 도신 스님의 '무상'만 편곡 작업을 했을 뿐이다. 정광진 감독은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한달간의 서울 장기공연 계획을 문광부와 타진 중이고 내년 뮤지컬페스티벌에도 이미 초청됐다"며 "내년 5월 전국 투어공연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뮤지컬 '갓바위'는 서울 공연에 이어 10월 28~29일 부산, 11월 3일 대구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033)427-5114 강지연 기자

2006 윤이상 월드 투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탄생 89주년을 맞아 일본 서울 독일에서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투어 연주회가 마련된다. 첫 무대는 일본 도쿄 동경예술대 주악당에서 9월 15일에 시작된다. '아시아의 악동하는 음들-한국 서울의 전통과 현대음악'을 주제로 펼쳐질 일본 공연은 윤이상 선생의 '플룻 독주를 위한 소리' '관현악곡 로양'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시나위' '해금산조' 등이 연주된다.

19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독일 공연은 베를린 성마태교회(10월 14일)와 뮌헨 칼 오프르트홀(16일)에서 각각 공연 일정이 잡혀있다. 독일 공연은 윤이상 음악 해석에 있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정기공연이기도 하다. 콘트라스트 I 등 주옥같은 실내악들을 연주한다. 강지연 기자

양주 육지장사 '윤림축제'

'함께 해요' 2006 가을맞이 육지장사 윤림축제가 9월 16일 오후 7시 양주 육지장사 상설악과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의 축제는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인 서울시 뮤지컬단과 무용단을 초청해 풍성한 음악과 춤의 향연을 벌인다. 무용단이 '천상지연' '타의예' '진도북춤' '부채춤' '화관무'로 무대를 장식하고, 뮤지컬단은 뮤지컬 '가버레' '아이디' '노트르담 드 파리' '아가씨와 건달들'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리스' '캣츠' '포시' 등에서 유명한 노래들을 선사한다. (031)871-0101 강지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톤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O마크 획득



수의 가격표

| 상품호칭 | 제작방법 | 재질(삼베) | 원단기공손질 | 원사생산 | 판매가격(25%할인가) |
|------|------|-------------|-----------|--------|--------------|
| 안동포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천연가공 경복안동 | 경북안동 | 3,800,000 |
| 1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천연가공 경복안동 | 중국(산둥) | 1,250,000 |
| 2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경남남해 | 중국(사천) | 835,000 |
| 3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중국 | 중국 | 475,000 |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윤년중에 윤달이 덩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엔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 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머무어 집착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 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 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